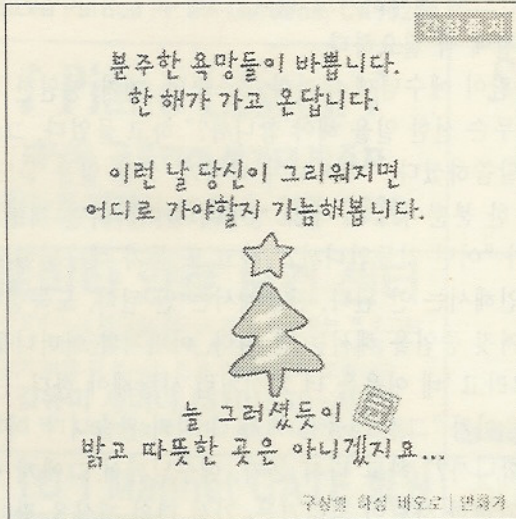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29권 5호(나해) 2008 · 12 · 28

[묵상]



애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으며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얻는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말과 행동으로 네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 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을 구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네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애야, 네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들이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집회서 3,1-13)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만성, 한간란 (생)이재정 사도요한, 김주량 사도요한, 이선재 니콜라오, 양덕배 사도요한 사제, 배상섭 사도요한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김시형 시릴로, 유연홍, 최정보, 김봉선 마리아 (생)김수환 추기경, 이종민 요셉, 김현정 헬레나, 김미연과 필호 가정, 김은영 켈마, 채 막시밀리언 콜베와 에스터 가정, 박병인 아마토와 요안나 가정, 고선미 스테파니 가정,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2-6.12-14

화답송 ○주님의 집에 사는 자, 얼마나 행복되리.
<전례성가 62, 성가정 축일>
○복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
○너의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듯, 너의 상들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도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2-21<또는 3,12-17>

복음 ○알렐루야.
환호성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루카(Luke) 2,22-40<또는 2,22.39-40>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께서 땅위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어울리셨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46	146
봉헌	401	142,147
성체	402	306,299
파견	101	101

22. 새로운 삶의 기준들

사람이 혼자서 산다면 법이 필요 없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법이 필요할 까닭이 없었다. 법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다. 인간 사회는 법 없이는 질서를 이룰 수 없고, 질서가 없는 인간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 않아 때때로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한 법은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16-21).

▶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인 하느님의 법

우리는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한 규범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 자연법과 양심

하느님의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알아 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할 일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하느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이라 한다. 이러한 자연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양심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CBCK 제공 - 계속)

가정 - 사랑 가득한 하느님 나라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교회는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가정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보고 가족과 함께 감사의 정을 나누며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곳, 가족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성탄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가정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고 나자렛의 한 가정을 통하여 성장해 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가정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깊은 의미가 자리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에서 노교수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과 안전한 버팀대가 없게 됩니다.... 가족의 뒷받침과 사랑과 염려가 없으면 많은 걸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天主是愛 천주시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린 날개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모리 교수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봐 주고 있는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입니다.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돈도 명예도 일도 이 안정감을 줄 순 없습니다.”

나자렛의 어린 예수님은 당신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나날이 성장해 가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을 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의 마리아 요셉 가정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성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 역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가정이고 싶습니다.

서로 오래 참아 주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 주는 곳!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건디어 내는 곳!

사랑이 가실 줄 모르는 곳!(1코린 13장)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곳!

그런 아름다운 성가정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박성철 미카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레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종년미사 : 12월31일(수) 오후 9시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월1일(목), 오전11시

◆ 성모신심미사 : 1월3일(토) 오전 8시30분

◆ 병자영성체 : 1월8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시간 : 1월8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백삼위 본당 성탄축하 잔치 소공동체 구역대항 장기자랑

● 일시 : 오늘 주일(28일) 낮미사 후 오후 1시부터

● 경연종목 : 1. 성탄절꾸미기 (Express Expression)

-6개구역별 주제

2. 지정곡(전례성가 142,144,146 중 택일)

3. 자유곡

● 상금 : 1등 \$500, 2등 \$300, 3등 \$200, 참가상 \$100

● 찬조출연 : 주일학교, 배론청년회

◆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

지난 일주일새 한국에서 본당 교우들의 모친 네분이 선종하셨습니다.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 최정보 님(정충로 안토니오 모친, 숙경 카타리나, 12월 19일) * 고 황인순 안젤라님(송종두 요한, 수자 미카엘라 모친 12월20일) * 고 김봉선 마리아 님(오상만 사무엘, 성희 스텔라 모친, 12월23일) * 한간란 님(김재연 다두, 희복 아네스 모친, 12월23일)

◆ 백삼위 성모회 신년하례 모임

● 일시 : 1월10일(토) 오후 6시, 강당

● 대상 : 45~65세 사이의 백삼위 여성교우

● 참석자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490-3358(오루시아), 755-8360(이스테파니)

축하합니다.

12월27일(토) 5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레나 멜라니아 ♡김혜원 베아트리카 ♡심민지 요안나

♡성민지 헬레나 ♡이선재 니콜라오

◆ 배론청년회 스키 트립

● 일시 : 1월23일(금)~25일(주일)

● 장소 : 빅베어

● 회비 : \$70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당 ☎(310)508-2123

◆ 새해(2009년/기축년/나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하늘에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한 2009년 본당 달력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립니다. 내용은 프랑스의 유명한 성당과 수도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 한 가정당 1부씩(성물판매대와 사무실)

●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2부 가져가세요.

◆ 레지오 마리에 낮반 Pr. '하늘의 문' 창단

백삼위 레지오 마리에 낮반 프레시디움 '하늘의 문'이 지난 18일부터 창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청:☎490-3358 오루시아

* 본당 프레시디움은 현재 수요일 저녁반 바다의 별, 순교자의 모후, 자비의 모후와 낮반 하늘의 문 등 넷입니다.

◆ 새해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이 없고, 연결수수료도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료 1분에 2.7센트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28일(주일) : 장기자랑대회에 앞서 각 구역별로 준비한 점심을 나눕니다.

● 1월4일(주일) : 소공동체 (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권오상	권태만	김병태	김선영	김완태
	김용상	김우용	김일선	김재영	김찬구	김한진
	김현숙	민경근	박상준	박상진	박순자	박진수
	방세훈	석인성	성낙호	신경훈	안희경	오수인
	오영섭	오태환	우영주	유영근	이경태	이상석
	이석제	이재정	이현주	임연조	정명모	정인식
	최상규	최수복	최재은	최태훈	최현찬	하정화
	한금순	한창주	홍석인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6,840					
	미사헌금 : \$2,995.45					

성전헌금	구자운	권오상	권태만	김병태	김선영	김용상
	김우용	김일선	김찬구	김한진	김현숙	민경근
	박상준	박상진	박순자	박진수	방세훈	성낙호
	신경훈	안희경	오명섭	오수인	오영섭	오태환
	우영주	유영근	이경태	이상석	이석제	이재정
	이현주	최재은	최현찬	하정화	한금순	한창주
	홍석인	황지영				
	합계 : \$5,350					
	감사헌금 : 이봉덕 문향업					
	구유예물 : \$4,397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성탄선물 성경 추가 배포

- 성탄절에 성경선물을 받지 못한 주일학교 학생들은 2009년 1월11일(주일) 수업시간에 받으십시오.

◆ 고등부 바이블 스타디(성경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룸 7
- 대상 : 9학년~12학년(주일학교)
- 지도교사 : 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베로니카
- 방학 : 1월2일(금)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겨울방학 : 오늘 주일(28일), 1월4일(주일) 수업 없습니다.

◆ 2008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08년) 조치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 일시 : 1월19일(월)~1월23일(금)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16,15)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80(숙식포함) *문의 : 김안나(213)272-7404

◆ 성체 신심 세미나

- 일시 : 1월27일~2월2일, 7일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버몬트 + 아담스)
- 지도 : 채창락 요셉신부(대구 산격성당 주임)
- 참가비 : \$30(교재포함) ☎(323)741-4433

◆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 따른 침묵 피정

- 일 시 : 1월30일(금)~2월3일(화) 4박5일
- 지도신부 : 안정호(이시도로) 예수회 신부
- 장 소 : 오렌지 Marywood Retreat Center
- 참가비 : \$400 * 문의 : 정도로테아 ☎(323)937-2083

이번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지경수 마테오 972-8292 1/16(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1/10(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1/16(금) 오후 7시30분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 데레사 618-8499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김용상 패트릭 619-7763 1/4(주일) 오후 5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1/8(목)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박마르시아 325-6982 1/14(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박혜선 안젤라 793-7733 1/9(목)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1/9(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1/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이용무 스테파노 377-9989 1/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서병교 라파엘 544-6377 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8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

“부부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를 통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드러난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성탄을 기뻐하며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통해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본연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이 숭고한 가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도한 물질주의에 물든 문화와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인 인격적 사랑과 정신적 가치관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단순한 경제논리로 부부간의 유대를 쉽게 판단하고, 부부애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은 이혼이라는 가정 공동체의 해체를 넘어 가족 공동체 상호간의 상처와 아픔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단순히 경제적 여건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 가정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연간 전체 혼인건수의 11%(3만8천 건, 2008년 통계청)를 차지하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름’을 수용하고 ‘공존’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정이 이러한 상황과 과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복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삶의 향구한 가르침은 ‘자기를 내어 줌으로써 참된 자기를 찾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오늘날 가정의 첫 번째 복음적 삶은 혼인성사 안에 들어 있는 사랑의 유대성을 잘 가꾸고 열매 맺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사요, 땅 위에 있는 신적 존재이며,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감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완성된 부부의 사랑으로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왜곡된 사랑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맑은 샘물과 같은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새해에도 계획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 위원장 황철수 주교

생태사도직 하늘·땅·물·벗

자연이 벗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벌목과 숲 파괴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고, 아프리카 원시림의 파괴가 두 배나 빨라져 3억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막화와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지난 8월 그린란드의 거대 빙하 두 개가 갈라지는 등 올 한 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모두 우리들이 하느님 창조물과의 평화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벗이여 나는 기뻐합니다. 한 처음에 그대가 하늘·땅·물에 벗이 되던 날에. 벗이여 나는 주었습니다. 그대가 달라는 모든 것을.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큰 사랑으로. 벗이여 나는 아꼈습니다. 하늘·땅·물을 더럽히고 내 벗들의 사랑어린 눈길을 외면할 때에. 벗이여 나는 기다립니다. 그대가 하늘·땅·물의 벗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우리는 모든 창조물들의 ‘벗’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벗 / 서울대교구